

무릎팍도사 출연자 인물분석 외향국화 기질입니다.

외향국화 기질에 속하는 사람들 : 김미화, 장한나, 조수미, 한비야, 심형래

외향국화 기질 - 열정적인, 언어적인, 창의적인, 성장하는, 표현적인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인생은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아주 흥미로운 것이며 드라마틱한 여정이다.
풍부한 상상력과 꿈을 가지고 있다.
도중에 그만두는 일이 있어도 일단 해보기 원한다.
사람에 대한 편견이 적으며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개개인의 잠재된 재능을 잘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화술이 뛰어나 말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 속에 내재된 긍정적인 잠재력을 격려하고 칭찬할 줄 아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김미화 - MC, 개그맨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코미디 프로에서 불러주지 않는다.
코미디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하고 싶다.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라 자칭하는 탁월한 언어 구사력을 가진 사람

장한나 - 첼리스트, 지휘자



지휘 공부를 시작한 후 공부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한 것이 고민이다.



8세에 서울시향과 협연

11세 뉴욕줄리아드 예비음대 특별장학생으로 입학

로스트로포비치 10명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우수상

13세 런던 심포니오케스트라와 앨범 녹음

그라모폰 선정 내일의 클래식슈퍼스타 20인에 선정



음악을 하지만 음악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분야를 다 하고 싶다.
첼로에서 지휘자로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다양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2001년 하버드 대학 철학과 입학

2007년 지휘자로 데뷔

처음 첼로를 배우는 6개월 동안은 엄격한 선생님 때문에 흥미를 가지지 못했지만, 후에 만난 대학생 언니 선생님이 칭찬을 잘해 주셔서 첼로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칭찬으로 격려해준 대학생 언니 덕분에 첼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조수미 - 성악가



숫자 개념이 없어서 고민이다.



대학에서 첫눈에 반한 남자를 너무 사랑하여 낙제하게 되었다.
지금도 그 사랑이 그립다. 열정적인 사랑을 알게해준 그 사람이 고맙다.
소녀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다.



순수한 예술가가 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고 싶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1912년 작곡한 ‘ 체르비네타이 노래’를 원곡 그대로 부른 사람
 동양인 최초 국제 콩쿠르 6개 석권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에서 주연으로 공연한 동양인 최초 프리마돈나
 1993년 동양인 최초 이탈리아 ‘황금기러기상’ 수상
 2008년 이탈리아인이 아닌 사람으로 세계 최초 ‘국제 푸치니상’ 수상

한비야 - 국제 긴급구호 활동가



세계 여러나라를 자유롭게 다니지만 길치라서 고민이다.

그 때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도 그리워 다시 가고 싶지만 그 곳이 어딘지를 다시 찾을 수 없다.

바람의 딸 -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한 번 왔던 바람은 다시 그 모양으로 그 곳을 오지 않는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



궁금한 것은 참을 수 없다.

국제홍보회사에서 부장 승진을 앞두고 35세의 나이에 세계 여행을 위해 사표 제출했다.

7년간 세계 65개국을 육로로 여행

9년간 월드비전에서 긴급구호팀장으로 활동

더 잘 하기 위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러 떠난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 - 열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



120살까지 꿈이 가득하다. - 무지개 꿈으로 가득한 사람
 하지만 진정 내 자신이 뭐가 될지 나도 모른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나도 궁금하다.
 '걸어서 지구 세바퀴 반' 100만부 베스트셀러
 2004년 한국YMCA선정 젊은 지도자상

심형래 - 영화감독, 개그맨



영화를 만들기 위해 홀로 미국으로



로케이션매니저에게 LA 시내에 탱크를 가져오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가능성을 보고 시도하라



어렵고 힘들 때 유일하게 희망이 된 것은 네티즌들의 격려의 댓글이었다.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